

‘그린’ 바람에 환경공학 각광

→ 26면 ‘지상 중계’에서 이어집니다
하버드에 지원할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MIT에서도 나타나 약 1000명 정도가 차이가 났다. 결국 이전보다 많은 숫자의 학생이 정시 전형에 지원했다. 하지만 2012학년도부터 이들 대학이 조기전형으로 되돌아 가는 바람에 좋은 성적의 학생들에게도 두 번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또다른 혼란이 일어났다.

▶남부 대학의 약진

그동안 수험생들의 관심밖에 있던 남부지역의 명문 대학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듀크대, 에모리대, 밴더빌트대, 웨이크 포리스트대, 윌리엄스대학이 그들이다. 특히 남가주에 있는 옥시덴탈 칼리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녔었다는 이유인 ‘오바마 효과’를 입어 눈에 띄게 관심을 끌고 있다. 해마다 지원자가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유학생 합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중국, 한국, 남미 출신들로 미국 학생보다 훨씬 비싼 수업료를 내고 또한 입학후 열심히 공부하는 경향 탓에 해마다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경향은 학부를 넘어 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약대, 의대, 치대는 물론 법대까지 염두에 두고 대학 고르기에 나서는 경향이다. 이제 대학이 목표가 아니고 대학원이 목표다.

▶조기전형은 트렌드가 아니다

2011~2012년 학기에 조기 전형의 합격률이 오른 대학들을 보고 조기전형이 트렌드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해마다 경제상황이나 문화여건 등의 이유로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조기전형 합격률이 상승과 하락이 혼재돼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수험생들이 갖는 의문사항이 조기전형을 하면 유리한 점이 있는냐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다름아닌 조기전형의 합격률이다. 하버드는 16%, 프린스턴은 21%, 스탠퍼드는 13%에 달해 각



어드미션 매스터즈 저니 김 시니어 어드바이저가 합격생들의 구체적인 조건을 비교·설명하고 있다.

각 정시 전형의 6%, 8%, 7%보다 높지만 이는 수치일 뿐이다.

우선 조기전형은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가 적다. 반면 정시 전형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참여한다. 또한 대학 입장에서 조기 전형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만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정시전형은 매우 다양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수험생들의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조기전형은 트렌드도 아니고 유리한 정도 없다.

가장 자신에게 맞는 계획과 전략을 짜야 한다. 이것은 대개 12학년 전 여름방학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1학년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다.

▶어떤 전공이 뜨나

시간이 갈수록 경영학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그러면 많이 받는 질문이 경영학 전공을 지원하는 것이 대입에 유리하냐는 것이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다. UC의 경우 전공별로 최대정원(cap)이 있다. 반면 다른 아이비 대학은 최대정원이 없는 경우다. 그래서 전공과 학교에 따라서 기회(chance)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전공과 관련하여 또 생각해볼 만한 것이 현재 문호가 열린 여러가지

직업에 관한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넓고 뒤를 이어 중학교 교사,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건설현장 감독, 마켓 리서치 분석가 순으로 열려 있다. 이런 경우 넓은 문호의 직업이 덜 전문적인 경우다. 마켓 리서치 분석가가 중학교 교사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

현재 대학에서 각광받고 있는 전공중 눈에 띄는 것은 환경과학(Environmental Sciences)이다. ‘그린’을 찾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50년 전에는 전혀 없던 환경과학을 각광받는 전공으로 만들었다. 뒤를 이어 경영학, 언론학, 컴퓨터 사이언스, 형사법, 교육, 마케팅, 간호학, 심리상담학, 정치사회학 순이다.

▶입학사정

사립명문대학들의 경우 잘알려져 있다시피 학생들을 선택하는 관점에서 과외활동이라든지 추천서, 에세이 등에 관심을 갖는다. 입학사정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반면 지원 학생이 엄청나게 많은 UC계 대학들은 포인트제를 택하고 있다. 추천서는 아예 없고 지원서에 올라있는 항목을 점수화하여 사정한다.